

광주·전남 행정통합 한다더니... 초광역협력사업 발굴 '꿀찌'

균형발전위 선정 29개 중 광주 2·전남 1... 부울경 9·대구경북 7개
예산 규모 부울경 20분의 1에 그쳐... 주도권 잡지 못해 초라한 성적

광주시·전남도가 행정통합을 추진하면서 정착 지역 간 공동 사업을 찾는 초광역 협력 프로젝트 발굴·지원 사업 공모 1차 심사결과 초라한 성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역 간 통합을 추진하는 부산·울산·경남은 초광역 신사업을 무더기로 발굴해 대거 1차 선정됐고, 예산 규모도 광주·전남의 20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의 관심 속에서 정부사업으로 반영되며, 지역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다는 평을 받고 있는 중요 프로젝트다.

특히 광주시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이미 선정된 인공지능(AI) 관련 사업들을 이번 초광역 협력 프로젝트 발굴·지원 사업에 접수했다가 대부분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국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따르면 초광역 협력 프로젝트 발굴·지원 사업 1차 심사결과 29개 사업을 선정했고, 이중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획·추진하는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부산·울산·경남의 사업은 9개였으며, 대구·경북도 7개 사업이 선정됐다.

하지만 전남은 1개의 사업만이 주관기관으로 뽑혔고, 광주시는 2개 사업의 주관기관(공동주관 포함)으로 선정됐다.

예초 광주는 초연결 인공지능(AI) 헬스케어 서비스 플랫폼 구축, 대구·광주 초심각 디지털 융합 의료 사업, 친환경 자율주행차 기반 스마트 물류 공동 활용 플랫폼 구축 등 3개 주관 사업을 제안했다.

심사결과 광주시는 친환경 자율주행차 기반 스마트 물류 공동 활용 플랫폼(482억원·부산전북 참여)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됐고, 대구·광주 초심각 한 국형 가상휴먼 디지털융합의료사업(4000억원)에 공동 주관기관으로 뽑혔다. 그나마 광주는 대구시가 주관기관인 대구·광주 달빛내륙벨트조성(4조 1930억)에 참여기관으로 이름을 올렸다.

전남도 웨이이징 휴먼 헬스케어벨리 조성사업(8000억원·광주전북참여)만 선정됐고, 광주·전남 영산강유역문화권 개발사업(1조2000억원), 광주·전남 에그리텍(Agri-Tech) 사이언스파크 조성사업(5000억원)은 탈락했다.

대신, 전남도는 대구·광주 달빛내륙벨트조성과 경북 주관의 기술기반상생협력 철강생태계 조성 지원사업(147억원), 부산 주관의 남해안 탄소소재벨트 구축사업(1400억원), 경남 주관의 남해안 특화자원 육성을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1500억원)에 참여기관으로 선정됐다.

정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이들 사업 중 10개 가량을 선정해 정부사업에 반영하고, 이르면 2022년 국비에 반영할 계획이다.

문제는 지역 자원을 함께 활용해 지역 간 협력 사업을 구상하는 초광역 협력 사업에서 광주시와 전남도가 전혀 주도권을 쥐지 못했고, 광주와 전남 간 협력 사업 발굴마저도 실패했다는 점이다.

▶2면으로 계속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화순, 선별진료소 긴 행렬
화순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주인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데 이어 가족과 동료 등 접촉자들도 잇따라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아 우레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12일 오전 화순읍 이릉대체육관에 마련된 도보 이동형 선별진료소에서 주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전남 코로나 재확산 '비상'... 1.5단계 격상 검토

내일 도심서 '광주민중대회' 열려
전국에서 1500여명 참석 예정
광주시 "확진자 발생 뎀 법적조치"

광주시는 코로나19 주말 확산 추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할지 결정하기로 했다. 시는 또 이번 주말 광주 도심에서 1500명 규모 대형 집회와 예고돼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다.

이윤섭 광주시장은 12일 민관 공동 대책위원회의 후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하다"며 "주말 추이를 지켜본 뒤 대응 단계 격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5일(7~11일)간 광주(14명), 전남(15명) 지역 감염 확진자는 총 29명이며 11일에는 광주 6명, 전남 8명이 발생했다. 광주는 이날도 유흥업소 관련 감염자가 1명 늘어 총 누적 확진자는 535명이 됐다.

순천 신한은행, 광주 방송통신고 등과 관련해서는 광주·전남 지역을 교차해 확진자가 나왔다. 특히 광주에서는 지난 8월에 이어 유흥업소발 집단 감염이 반복돼 우려를 키우고 있다. 현재 광주 상무지구 한 업소에서 종사자 4명, 손님 3명 등 7명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252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방역 당국은 확진자가 다수 나온 유흥업소에 별도 조치가 있을 때까지 집합 금지와 시설폐쇄 행정 조치를 내렸다. 확진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을 확인하고 과태료도 부과하기로 했다. 당국은 5개 구청과 협조해 유흥업소 방역수칙 이행 실태 점검을 강화하고 확진자가 발생한 업소나 방역수칙을 위반한 확진자에게는 법적 조치를 하기로 했다. 광주에서는 현재까지 코로나19와 관련해 고발 82건,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1건이 있었다.

이 시장은 또 이번 주말 대규모 집회와 관련해선 "이번 집회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주최 측에 모든 책임을 묻고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주말인 14일 오후 2시부터 광주시청, 상무평화공원, 5·18기념공원 등 광주 도심 곳곳에서 광주진보연대가 주관하고 민주노동 광주 지역본부가 주최하는 '광주민중대회'가 열린다. 집회에는 전국에서 근로자, 농민 등 1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11~12일 전남에서는 코로나 19 확진자 14명이 쏟아지며 바이러스가 무섭게 번지고 있다. 광주 방송통신고에 재학 중인 화순 거주 50대 요양보호사와 광양제철소 협력사 2곳에 근무 중인 모자(母子)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생겨나고 있다. 확진 일자별 기준으로는 지난 11일 8명(전남 200-207번), 12일 오후 5시 현재 6명(208-213번)이 발생했다. 지난 11일 오전 광양제철소 협력사에 근무하는 20대 남성(200번)이 확진된 데 이어 같은 날 오후 늦게 그의 모친(202번), 여동생(203번)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화순에서는 50대 여성 요양보호사(목욕 돌봄·광주 방송통신고 재학·201번)가 11일 오후 확진 판정을 받았고 뒤이어 그의 남편과 자녀(204·205번), 직장 동료(206번)가 같은 날 밤 잇따라 확진됐다.

신한은행 순천 연향지점 첫 확진자(광주 517번)의 자녀 한 명(전남 207번)도 11일 밤 여수 자택에서 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았다. 12일에는 광양 소재 성광기업에서 확진자 6명이 쏟아졌다. 이들은 모두 지난 11일 확진 판정받은 전남 202번(200번 모친)의 직장 동료들이다. 확진자들은 광양에 3명, 여수에 3명 주소를 두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k@kwangju.co.kr

한·미 "북핵 등 한반도 현안 긴밀 협력"

문 대통령-바이든 당선자 첫 통화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12일 첫 정상통화를 갖고 북 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현안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부터 14분간 이어진 통화에서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과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정착을 위해 긴밀히 소통하자"고 말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이 긴밀한 소통·협력에 의견을 같이한 만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전진시키기 위한 한미 간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이날 통화에서 문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은 한미 동맹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인식을 함께했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당선인이 줄곧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특히 필라델피아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 헌화하고 최근에 언론에 기고문을 보내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했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에 바이든 당선인은 한미동맹을 "인도-태평양 안보 번영의 핵심축(linchpin)"이라고 표현하며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을 유지하겠다"고 했다. 바이든 당선인의 언급은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동시에 대중국 경제 전략으로써 중국과의 갈등을 내포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 관저 접견실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첫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한국의 동참을 우회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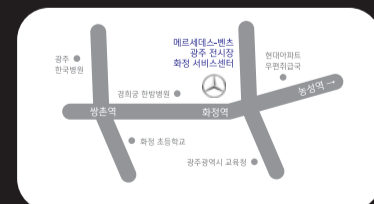
또한 문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은 코로나19 및 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 대응에서도 한미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나아가 문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은 내년 1월 20일 바이든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 후 가능한 한 조속히 만나 직접 대화할 기회를 갖기로 공감,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한미 양국 간 조율이 이어질 전망이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The new GLA & The new GLB
#UrbanAdventure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에서 직접 경험하세요!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양 서비스센터 (062)376-2557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양동)
M8 인공음료지 광주 전시장 (062) 945-0007 광주광역시 광안구 임원로48호 516(수영동)
호주 서비스센터 (062)945-2700 광주광역시 남구 죽림로 602(남구 죽림동)
주안 서비스센터 (062)945-1000 광주광역시 광안구 임원로48호 520(수영동)

정부 공인 표준 정비 및 부품
GLA 250 4MATIC (배기량: 1,991cc, 공차중량: 1,660kg, 자중하중, 복합연비(ℓ/㎞): 10.5, (도시연비: 9.5, 고속도로연비: 12.1), 4등급, 복합 CO2 배출량: 170
GLB 220 (배기량: 1,991cc, 공차중량: 1,650kg, 자중하중, 복합연비(ℓ/㎞): 11.5, (도시연비: 10.3, 고속도로연비: 13.2), 4등급, 복합 CO2 배출량: 150
GLB 250 4MATIC (배기량: 1,991cc, 공차중량: 1,720kg, 자중하중, 복합연비(ℓ/㎞): 10.5, (도시연비: 9.5, 고속도로연비: 12.1), 4등급, 복합 CO2 배출량: 170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공기 저항 계수는 국내 차량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랑과 감사의 66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0]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